

우리들만의 공동체문화 '꽃 피웠다'

전주시, 온두레 공동체사업 활동 공유회 개최 삼천도시대학협의회 등 11개팀 우수공동체 선정

행복하고 인정 넘치는 공동체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삼천도시대학협의회와 혁신 하모니 등 11개팀이 우수 공동체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9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300여명의 온두레 공동체 회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2016 온두레 공동체사업 활동 공유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가장 열심히 활동해온 11개 공동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활동 공유회에서 전주시 63개의 모든 온두레공동체들은 마을, 문화, 공예, 공유·장터, 교육·환경 등 각 분야별 공동체 활동 사례발표를 통해 각 공동체별 운영성과를 공유했다.

시는 활동성과가 우수한 8팀에게 전주시장상을 시상했다.

전주시장상에는 먼저,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삼천도시대학협의회, 혁신하모니, 어울림 실버동극단 등 3개 공동체가 '행복한 온두레상'을 수상했다. 또, 공유장터 개최와 재능기부 나눔 등을 실천해온 아바캅트협동조합, 삼천사탑-시민에

술가모임, 놀이마당 오감, 누루걸음, 착한사람들 등 5개 공동체는 '일출삼출온두레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체 활동가들의 현장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득표를 한 3팀에게는 전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상이 수여됐다.

이와 관련, 전주시 공동체사업 추진 2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 활동해온 온두레 공동체 회원들이 활동사항 공유를 통해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연계를 통한 사업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의 계기를 마련하는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63개 공동체 회원들은 그간 각 공동체별로 추진해왔던 사업 성과물을 토대로 공예와 문화, 교육·환경, 공유·장터, 식품, 홍보, 마을 등 7개 분야 모듬별 준비 과정을 거쳐 △활동 사진과 작품을 전시하는 '공동체 갤러리' △2016 공동체 한마당 최우수공동체로 선정된 동화나래연구소의 전주 설화 인형극 공연 △2016년 공동체 활동 사례 발표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한 추억의 화장 시골 교복 및 패션



'우리집 떡볶이 공짜' 지난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전북 전주시 효자동 한 분식집에서 학생들에게 떡볶이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액세서리 착용하기, 추억의 달고나 체험, 딱지치기 등 다채로운 추억 놀이도 마련됐다.

시는 이번 활동 공유회가 시민들이 이웃과 소통하면서 함께 배우고 희망을 열어가자는 것은 물론, 공동체 정신이 전주시민들의 삶의 터전에 뿌리깊이 정착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공동체 활동 공유회가 공동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이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 주민들이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는 마을을 만드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면서 "우수공동체들의 사례를 토대로 전주시 전역에 더불어 행복하고 인정 넘치는 공동체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63개 공동체를 선정해 시민들이 이웃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와 교육, 경제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온두레 공동체 사업을 전개해 왔다. /김영재 기자

강황수 경무관 전주완산시장 취임



33년만에 전북경찰청 출신으로 경무관에 진급한 강황수 경무관이 9일 취임 간담회와 함께 전주완산경찰서의 70대 서장으로 취임했다.

전북 치안의 핵심인 전주완산경찰서장으로 취임한 강황수 서장은 간부후보생 37기로 경찰에 입문하여, 익산경찰서장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해 왔다. 강황수 서장은 취임사에서 "첫째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치안은 물론 강력범죄로부터 담당하고 믿음직한 경찰, 셋째 직원간 소통하고 서로 배려하는 따뜻한 조직문화를 가진 경찰이 되자"며 완산경찰이 나아가야 할 청사진을 밝혔다.

이어 "전북 치안 1번지인 완산경찰서에 부임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다하기 위해 내부 만족도 향상을 다방면으로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연탄은행에 기부

전주시는 2016년 탄소포인트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중 기부를 희망하는 318세대의 인센티브 306만원을 전주연탄은행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탄소포인트에 가입한 가정 및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절감해 발생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중 현금으로 지급받는 대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를 희망한 탄소포인트 참여자 318명의 기부금이다. 이 기부금은 전주연탄은행에 전달돼 저소득층의 연탄보급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탄소포인트 가입 및 기부 참여 확

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탄소포인트 가입세대와 기부 참여세대가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지역 내 새로운 기부문화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한편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상업시설 등에서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으로 1년에 상·하반기 2회 지급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가입하거나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고객번호 필수입력)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빗물재활용 전국 우수사례 선정

빗물로 축축하게 적시는 다양한 빗물이용 사례 발표

전주시가 추진해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빗물재이용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는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경주에서 열린 '2016년 하수도연찬회'에서 민선6기 핵심가치인 '사람우선·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위해 추진해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수도연찬회는 전국 하수도업무 관련 담당공무원과 업계 종사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운영관리기법 및 신기술 정보의 상호교류를 통해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행사로, 시는 생태도시 전주를 빗물로 축축하게 적시는 다양한 빗물이용 사례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한국의 꽃심 전주! 빗물로 적시다'부제: 빗물이용시

설 운영실태와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전주시의 다양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이용사례와 빗물이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빗물이용시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 사용실태 현장 조사 결과 분석 등 빗물이용시설 운영사례를 발표, 연찬회에 참석한 타 지자체 공무원과 관련기관 담당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대표적으로, 시는 빗물이용시설 확대 설치를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10년부터 총 6억 8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현재 총 145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공공시설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복지시설, 공동주택, 일반주택 등에 설치된 빗물이용시설 전체 저장용량은 총 1825톤 규모로, 시는 깨끗한 빗물을 받기 위한 탄소여과장치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빗물이용시설은 수도물을 절약하고 청소, 세척, 화장실, 조경, 잔디, 텃밭, 분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예산지원 없이 자비 부담으로 스스로 설치해 사용하는 시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해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내실 있는 '전주시 물재이용 관리위원회' 운영 △전국 최초의 '빗물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시행 △빗물이용시설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은희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빗물이용 활성화가 시민운동으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향후 재해예방과 비점오염 저감, 도심열섬 해소 및 폭염, 가뭄의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적 가치를 실현하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생태도시 구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재 기자

자랑스런 청소년 시상

(사)일일선실천국민운동본부(이사장 이상익)는 12월의 자랑스러운 청소년으로 이혜진(고창남초 6), 소현민(정읍 동신초 6), 정혜윤(이리부초 5) 등 3명을 선정하고 상패와 상품을 수여했다.

이 어린이들은 일일선 운동의 3대 덕목인 바로서는 질서·아름다운 배려·따뜻한 나눔을 앞장서 실천하고 모범적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어린이들로써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됐다. /김영재 기자

수족관 덮개 훔친 50대 검거

군산경찰서는 9일 심야시간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을 이용해 수족관 덮개를 절취한 A씨(50,남)를 형사건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11월 17일 군산시 소재의 한 음식점 앞에서 주차된 활어특장차를 발견하고 인근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해 시가 50만원 상당의 수족관 덮개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북청빙판길 우리지역 현장점검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9지구대가 겨울철 폭설과 한파로 빙판길 교통사고가 예상되는 우리지역 14개소의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지난해 교통사고를 분석하여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시됐다.

고순대 제9지구대 방홍 대장은 "겨울철 산간지역은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빨리 떨어져 빙판길 생성이 빨라 이웃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또한 겨울철 대형사고 원인이 과속으로 인한 미끄럼사고로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설공단 주차구역 도색완료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신)은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6개소의 사회적 약자 전용 주차구역 도색작업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약자 전용주차구역 도색작업은 오거리, 덕진광장, 삼천2동, 서신동, 중화산2동, 한옥마을 건물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30면, 임산부 11면에 대한 도색작업을 마무리했다. 현재 공영주차장 18개소에 사회적 약자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132면, 임산부 28면, 여성전용 17면을 확보해 운영되고 있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김신 이사장은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개선으로 장애인, 임산부 및 여성들을 위한 주차장 제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문화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